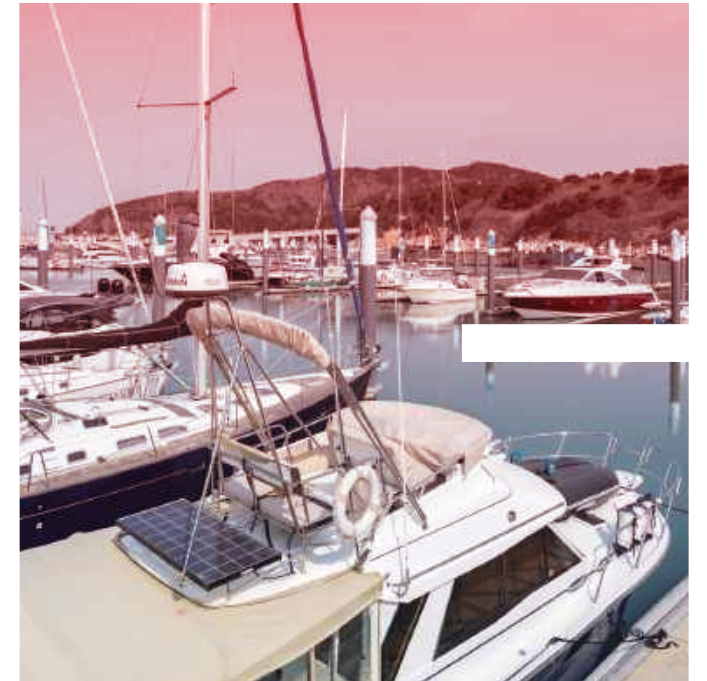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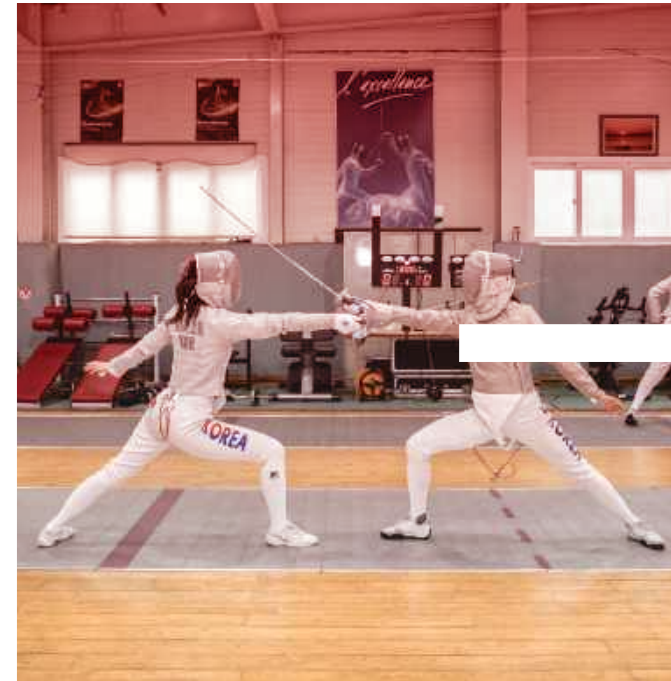


각양각색 중구 풍경부터



빛나는 중구 소식까지

2025 인천개항장 밤마실 최초의 국제도시

국가유산 문화유산 유유자적+ 야행

인천개항장 국가유산야행

2025.6.14~15
2025.9.20~21
인천개항장문화지구일원
Incheon Open Port Culture Night 2025

주최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 주관 서울관광공사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개항장국가유산야행은 국가유산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구 신춘문예

新 春 文 藝

중구가 2024년 진행한 '제2회 중구사랑 글짓기 대회'에 다양한 작품이 제출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글을 읽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도록 중구 <두드림톡>에서 수상작을 소개한다. 이번 작품은 중등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내가 품은 추억과 청춘

글. 신울(공향중학교 3학년 7반)

'바스락바스락' 영마루 공원의 떨어진 낙엽을 모두 밟아보려는 듯 아이들은 잎들이 떨어진 길을 따라 걷는다. 한쪽에서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수다를 떠는 학생들이 있고 강아지와 산책을 나오신 어르신들도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가신다. 이 풍경은 내가 매년 가을마다 보는 영마루 공원의 모습이다.

옛날부터 나는 우리 동네를 생각하면 항상 '없는 게 없는 시골'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아마 이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고도 제안 때문에 낮은 건물들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시골 같은 동네이지만, 실제 시골에서 겪는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택배 배송, 은행과 편의점 크고 작은 카페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정겨운 동네를 좋아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작은 섬 동네에서 자랐다. 그리고 같이 성장했다. 점점 육지를 쉽게 오갈 수 있었고 나도 친구들과 혹은 혼자 동네를 돌아다녔다. 함께 성장해 온 동네가 나에게 제일 친한 친구 같았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심심할 때 같이 놀아주는 그런 친구같이 느껴졌다. 또 집처럼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장소이다. 숲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취향이 어우러지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 항상 어릴 때 가족들과 '세계 평화의 숲' 일명 세평숲을 산책한 것이다. 자주 그곳에 가서 걸었는데, 어릴 때는 이 시간을 가장 기대하고 좋아했다. 숲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바다가 나온다. 예쁘고 반짝거리는 바다는 아니어도 숲과 붙어있는 바다는 그 자체만

으로도 멋진 광경이다. 걸을 때마다 바다를 봤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숲을 걷는 중에는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족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서 하루를 뿌듯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동네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은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엄청난 행복이다. 이런 동네에서 자랐던 사실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경험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돌아오는 동네가 나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고 지금도 책임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공원이 있다. 16년 동안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다. 넓은 잔디와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많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날씨가 좋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람들의 휴식을 책임져 주고 있는 공원이다. 놀이터에는 아이보다 애들과 놀아주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신 듯하다. 정자에는 밤새 수다를 떠는 이들과 산책 중에 쉬는 어르신들도 계신다.

공원의 사계절은 시간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매미의 소리가 가득하고, 장마 기간에는 빗소리가 울려 퍼진다.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 나무에서 떨어진 색색의 낙엽들이 사람들의 신발에 밟히며 가을을 알리는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일부러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는 듯 보인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잠깐 공원의 색을 잃지만, 곧 눈을 가지고 놀기 위한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진다. 장갑과 잠바의 형형색색 빛깔로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게 울린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며 꽃향기로 공원을 가득 채운다. 이렇듯 사계절을 품은 공원이 집 앞에 있어 나는 매일 즐겁고 신비한 경험으로 인생을 채우는 중이다.

내가 사는 동네가 사계절을 품는다. 그러면서도 나도 함께 사계절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중구는 나뿐만 아닌 우리의 추억, 청춘을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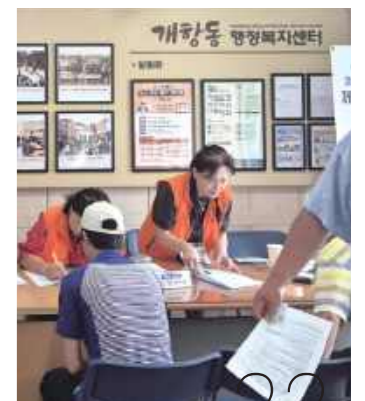
04



18



10



22

CONTENTS

VOL. 273
2025 SEPTEMBER



중구 오디오북

- 04 중구 특집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 08 중구여행 폴코스
중구 명소를 200% 즐기는 방법
- 10 특급 레시피
㉠ 중구 '고구마' - 고구마맛탕
- 12 숫자로 보는 중구 특징
중구의 문화유산
- 14 중구실록
㉠ 세계와 연결하는 인프라
- 18 활기찬 인생 2막
[현미랑콩이랑] 참여자, 김영수 어르신
- 20 중구 특강
근대 금융의 흔적, 인천 본정통 은행거리
- 22 우리 동네 특보
중구 동네 이야기
- 24 의회소식
중구의회 주요 뉴스
- 25 중구 게시판
알아두면 편리한 행정 서비스
- 28 중구가 북적북적
중구 독서 캠페인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30 중구 스케치북
제11회 인천 건축물 그리기 대회 수상작
- 31 문화달력
9월 중구의 공연, 행사 등



PIERCE THE GAP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Jung-gu
Fencing



빈틈을 찌르고 승리를 베다

메달을 향한 매서운 칼끝

거침없이 전진하는 발소리와 빠르게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선수들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찌르거나 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세운다. 찰나의 순간 불이 켜지고 승패가 결정된다. 연습도 실전처럼 눈을 땔 수 없는 경기를 선보이는 '중구청 펜싱팀'을 소개한다.

CUT DOWN VICTORY



중구를 빛내는 여자 검객들

장기철 감독이 이끄는 중구청 펜싱팀은 1991년 창단되어 현재 34년 차를 맞이했다. 인천에 실업팀 선수단이 생기던 무렵 만들어져 지금까지 인천 유일의 펜싱팀으로 활동 중이다. 선수들은 모두 9명으로 오혜미·김현진·문세희·모별이 선수가 있는 플뢰레와 양예솔·김도희·지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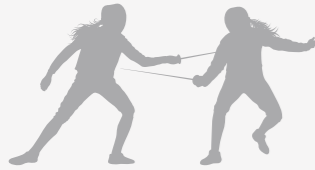
전은혜·한두미 선수가 있는 사브르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문학경기장 내 펜싱장의 문을 열자 연습에 몰두한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치열한 공방 끝에 득점하는 기쁨도 잠시, 경기는 곧바로 이어진다. 펜싱은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불린다.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반으로 두뇌 싸움을 펼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할지 수비할지 기민하게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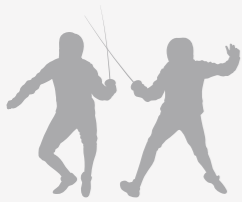
펜싱과 가까워지기

1 플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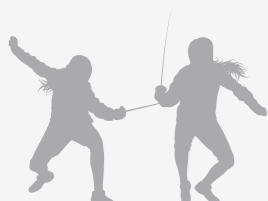
공격범위 팔과 머리를 제외하고
골반 위쪽의 상체만 찌르기
칼 규격 무게 500g, 날길이 90cm

2 사브르



공격범위 팔과 머리를 포함한
상체를 찌르거나 베기
칼 규격 무게 500g, 날길이 88cm

3 에페



공격범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찌르기
칼 규격 무게 770g, 날길이 90cm

성적으로 드러나는 꾸준한 노력

펜싱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었다. 중구청 펜싱팀 역시 펜싱 경기대인 피스트를 설치하지 못해 시멘트 바닥에서 훈련하고 칼이 부러지면 철사로 연결해 사용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았고, 펜싱에 대한 지원도 커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첫 메달은 '2025 전국남녀종목

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나왔다. 플뢰레와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땀으며, 모별이 선수와 전은혜 선수는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7월에 열린 '제6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는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펜싱 명가의 저력을 입증했다. 선수들은 남은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8월 14일 대통령배 대회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김창환배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과 겸하기에 선수 개개인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9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장기철 중구청 펜싱팀 감독

저희 펜싱팀은 선수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단체전 경기에서 잘 드러나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요. 앞으로도 선수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중구에 펜싱클럽이 생겨서 구민들이 펜싱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혜미 중구청 소속 18년 차, 플뢰레

좋아하는 기술
꾸베(상대의 칼을 위로 넘어 들어가는 공격)
▶이유 파워풀한 동작이며 상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공격이라서
루틴 후회할 경기를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시합에 오른다.
목표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경기하기



김현진 중구청 소속 6년 차, 플뢰레

좋아하는 기술
심플 공격(다른 기술 없이 곧바로 행하는 공격)
▶이유 경기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주로 하는 공격이라서
루틴 경기 2시간 전 아침밥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에 상대 선수를 분석한다.
목표 국가대표 선발



문세희 중구청 소속 3년 차, 플뢰레

좋아하는 기술
데가제(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동작)
▶이유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 공격하는 고급 기술이라서
루틴 경기하기 전에 충분히 땀을 흘려 몸을 풀고 게임에 집중한다.
목표 국가대표 선발



김도희 중구청 소속 7년 차, 사브르

좋아하는 기술
공뜨르 아따꼬(상대가 공격하도록 유도한 뒤에 역공격하는 동작)
▶이유 상대를 속였다는 쾌감과 함께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루틴 시합 전 기도하고, 꼭 한번은 화장실에 간다.
목표 나만의 기술과 전술을 활용해 펜싱 경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



지영경 중구청 소속 6년 차, 사브르

좋아하는 기술
후레쉬(몸을 앞으로 날리면서 찌르는 동작)
▶이유 빠른 속도로 나비처럼 나는 몸짓이라서
루틴 시합 전 기도하고, 경기 중에는 파이팅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목표 전국체전 단체전 3연패



양예슬 중구청 소속 5년 차, 사브르

좋아하는 기술
빠라드(자신의 칼로 상대의 칼을 빗나가게 하는 방어 동작)
▶이유 방어한 뒤에 공격을 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루틴 시합 전날은 꼭 일찍(8시 30분) 자는 편이다.
목표 전국체전 단체전 3연패



전은혜 중구청 소속 2년 차, 사브르

좋아하는 기술
팡트(앞발을 크게 내디디며 찌르는 동작)
▶이유 주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기술이라서
루틴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 기분을 끌어올린다.
목표 전국체전 단체전 3연패



중구에서 쉬어가기

중구 명소를 200%로 즐기는 방법

이제 여행자들은 그저 목적지를 정해서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여유롭게 휴식하며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를 남기고자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휴식부터 체험, 관람, 쇼핑, 숙박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행 코스, 9월의 테마는 '알고 가면 더 재밌는 여행'이다.



영문-중문 번역서비스



상상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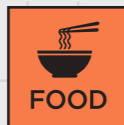


감각적인 체험을 즐기는 명소

- #복합문화관광시설
- #문화가_숨쉬는_공간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항 속, 낡고 오래된 곡물창고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 상상플랫폼으로 탄생했다. 내부에는 편안한 심터이자 예술이 피어나는 웨이브홀을 비롯해 한지 공예품점, AI융합교육센터,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바다 앞 1883 개항광장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주소 인천 중구 월미로 33
- 운영시간 매일 7:00~21:00
- 누리집 sangsangplatform.or.kr
- 인스타그램 @sangsangplatform_official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미

- #오랜_역사를_있는_맛
- #인천차이나타운_맛집

짜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이 된 옛 공화춘. 이곳의 창업주인 우희광의 손녀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신승반점이다. 대를 이은 깊은 맛으로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대표 메뉴는 돼지고기와 채소를 잘게 다져서 만든 달콤한 소스와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유니짜장면으로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 주소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31-3
- 운영시간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타임 : 15:00~16:45
 - 중간 라스트오더 : 평일 14:30, 주말 15:00 / 라스트오더 : 20:20
- 문의 762-9467



신승반점

유니크한 하루가 시작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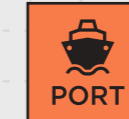
- #여러가지_부대시설
- #반려동물_전용_숙소

13가지 타입의 객실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하는 더위크앤리조트. 워터파크, 실내 수영장, 스파, 루프탑 라운지, 미니 골프장, 레스토랑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리조트에서만 머물러도 하루가 유니크하게 완성된다. 무엇보다 반려견 전용 숙소와 함께 돌봄부터 트레이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반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주소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
- 누리집 www.theweekandresort.com
- 인스타그램 @theweekand_resort
- 문의 745-0000



더위크앤리조트



여름의 정취를 마주하는 순간

- #바다에서_누리는_낭만
- #이색_체험이_가득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가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 왕산마리나. 이곳은 341척의 중소형 마리나 선박과 슈퍼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선착장으로 다양한 요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한쪽에는 카페, 편의점 등이 갖춰져 있으며,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어 주변 풍광을 여유롭게 감상하기 좋다. 더해 편의점에 조성된 라면 라이브러리에서는 전 세계 140여 종의 라면을 맛볼 수 있어 이색적인 경험을 더해준다.

- 주소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길 143
- 누리집 www.wangsanmarina.co.kr
- 문의 202-9960



왕산마리나



중구 특산물로 만든 레시피

오늘 뭐 먹지?

하루에 세 번 찾아오는 고민, '뭐 먹지?'. 사 먹기는 귀찮고 배달은 질려버린 이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준비했다. 중구의 자연에서 나온 선물로 만든 오늘의 집밥, 여덟 번째 주인공은 '고구마'다.



달달하니 맛있는 고구마

기근이 심할 때마다 주식 대신 먹던 구황작물. 그중 고구마는 감자, 옥수수와 함께 손꼽히는 식량이다. 무엇보다 고구마는 조선 후기, 조선통신사의 임무를 받아 일본에 간 조엄이 백성의 배고픔을 구제하고자 의도적으로 들여왔다. 고구마뿐만 아니라 즐기와 잎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가난한 이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다.

중구에서 주로 판매되는 건 베로니카 품종으로 '꿀고구마'라고도 부른다. 여러 품종 중에서도 단맛이 가장 강하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 형태를 띠며, 속이 부서지지 않고 숙성될수록 부드러워진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많은 일조량과 진한 황토를 갖추고 있어 고구마의 맛이 한층 깊다.

영양학적으로도 최고구마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NASA에서 우주시대 식량자원으로 선정할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다. 주성분인 탄수화물을 비롯해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가득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음식물의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항암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혈류에서 당 흡수를 늦춰 혈당지수를 낮춰준다. 단, 굵게 되면 전분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기에 혈당 조절이 필요할 경우 고구마를 찌거나 생으로 섭취해야 한다.

중구 특산물, 고구마 Sweet Potato

품종	베로니카
제철시기	9~10월
특징	껍질은 진한 보라색이며, 다른 품종에 비해 형태가 가름하고 매끈하다.
보관방법	햇별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둔다. 습기가 차면 썩을 수 있어 냉장 보관은 피한다.

고구마맛탕 레시피 Recipe

재료 고구마 3개, 버터 작은 조각 1개, 알룰로스 5큰술, 통깨(또는 검정깨)

1.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은 후 한 입 크기로 썬다.
2. 그릇에 담아 랩을 씌우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준다.
3. 5분 정도 돌린 다음 젓가락으로 찢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1분씩 추가한다.
※ 꺼낼 시에는 증기가 뜨거우므로 오븐 장갑 등을 사용하기
4.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인 후 알룰로스를 넣고 캐러멜색이 될 때까지 저어준다.
5. 만들어진 시럽에 고구마를 넣고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볶는다.
6. 마무리로 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이다.



맛과 영양, 골고루 갖춘 중구 고구마

유산을 지키는 중구

알리는

중구의 문화유산

선조들의 삶과 문화가 깃든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중구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깊은 역사와 민족의 정신, 예술적 가치가 살아 있는 중구의 유산들을 살펴보자.

중구 문화유산 현황

32개 중구에는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유형 및 무형의 유산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1 국가 지정 문화유산

2개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문화유산으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으로 나뉘어 있다.

목록 인천 담동성당, 인천 팔미도 등대



2 시 지정 문화유산

22개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더라도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구분된다.

목록

- 유형문화유산(10) :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우체국, 용궁사, 구)제물포구락부, 구)일본제58은행지점, 흥예문,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내동 성공회성당, 능인교당 신중탱화, 용궁사 수월관음도
- 무형유산(3) : 대금정악(대풍류·대금), 단청장, 지하장
- 기념물(3) : 용궁사 느티나무,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삼목도 선사주거지
- 민속문화재(1) : 용동 큰우물
- 문화재자료(5) : 남북동 조병수가옥, 능인교당 현왕탱화, 양주성 금숙비, 용궁사 신중도, 용궁사 지장시왕도



3 국가 등록 문화유산

6개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주로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목록

인천 선린동 공화춘, 구 일본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 구 인천부 청사,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4 시 등록 문화유산

2개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국가 등록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산이다.

목록

송학동 옛 시장관사, 구 미쓰이 물산 인천지점

기타 문화유산

4건 중구에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도 있다.



1 인천감리서지

위치 인천 중구 내동 83
시대 조선말기
내용 조계 내 사무, 인천개항장에서의 상품 수출입과 세액 검토 등을 수행한 옛 법원자리

2 전환국지

위치 인천 중구 전동
시대 1892년(고종 29)
내용 근대적인 화폐를 주조하고 발행했던 곳으로 현재의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지

3 철도시발지

위치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
시대 조선말기
내용 경인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의 효시로 1897년 3월 22일 우각현에서 기공식 거행

4 월미행궁지

위치 월미도
시대 조선중기
내용 왕족이 본궁 밖에서 임시로 숙박하는 건축물로 총 28칸의 목조 기와 건물

무형유산 활용사업

2건 * 중구의 무형문화유산 : 대금정악(대풍류·대금), 단청장, 지하장

1 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

기간 2025. 1~12월
대상 관내 국가 및 시 무형유산
내용 관내 교육장소가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중구 지역 구술생애사 기록화 [신규]

기간 2025. 4~6월
대상 관내 소재 지역유산 기능 보유자
내용 국가 또는 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기록·보존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 대상으로 한 기록화 연구



국가유산 활용사업

3건

1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기간 2025. 6월, 9월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인천시민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내용 8야(夜)를 기반으로 담은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생국가유산

기간 2025. 2~12월
대상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내용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인천개항장 일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제 세계가 만나던 곳, 인천개항장

3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기간 2025. 2~12월
대상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장소 중구 관내 학교 교실 및 국가유산 현장
내용 중구 관내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주제 반짝반짝 인천 중구 국가유산 - 별, 바다처럼 마음에 담아요



역사문화자연 정비

2건

1 백운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관리

위치 인천 중구 운남동 산 120-1 일원
내용 백운산 등산로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

2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

위치 인천 중구 율목로 39, 율목공원 일원
내용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증액



켜켜이 쌓인 도시의 시간 속으로

⑧ 세계와 연결하는 인프라

도시의 풍경이
숨 돌릴 틈 없이 변해간다.
새 건물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가고 오래된 건물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쉬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땅 위에 켜켜이 쌓아 올린 역사는
오늘의 중구를 만들었고,
내일의 중구를 보여준다.
그 시간들이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2025년 <두드림톡>에서는
'중구실록'을 연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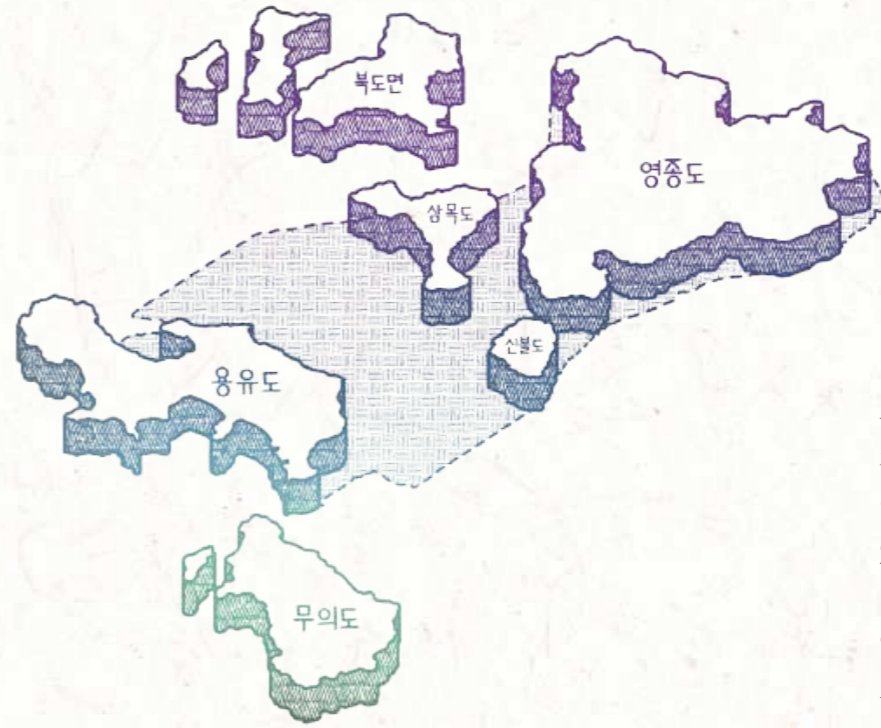
여덟 번째는 중구 영종에 조성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대교의 이야기다.

그 길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만들어졌고

아무것도 없던 바다와 땅 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도전.



삼목도는 총면적 4.74km²로 해안선 길이가 12.5km이고, 인구가 약 714명이었다. 신불도는 약 299명이 거주하던 작은 섬이었다.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는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영종도와 신불도는 독길로 연결되어 있었고, 삼목도는 도로를 통해 이어졌다. 좁은 도로였지만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용유도는 삼목도를 통해 영종도와 연결됐다. 용유도와 삼목도는 다리로 오갔다. 그 이전에는 징검다리로 이동해야 했기에 물이 빠졌을 때만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았고 염전도 운영했다. 특히 염전은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수입원으로, 섬 주변 갯벌의 수심이 얕아 독을 쌓고 매립해 염전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소박하고 평화롭던 섬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6월 14일 영종도가 공항 부지로 선정되면서부터다.

— 흔적만 남은 네 개의 섬

과거 영종도는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영종도는 고려시대에는 '자연도'라고 불리던 섬이었다. 이는 '자춧빛 제비섬'이라는 의미로 제비가 많이 살았으며 해 질 무렵이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아름다워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이후 1653년(효종4)에 영종진을 자연도로 옮기면서 점차 영종도로 불리게 됐다.

또한 용유도는 섬의 모양이 용이 수영하며 노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밭길이 잘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과 경관을 품은 명소이다. 이 외에도 삼목도와 신불도는 영종도의 서쪽에 자리했던 섬들이다.

二

갯벌 위로 열린 하늘길

1980년대 중반, 국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김포국제공항이 혼잡해질 것을 대비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여러 부지 후보들이 있었으나 비행 거리 3시간 30분 이내에 인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있다는 지리적 강점으로 영종도로 정해졌다.

섬 사이를 흐르던 바다와 갯벌이 흠으로 메워지며 하나의 땅이 됐다. 그렇게 공사 기간 8년 4개월 만에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했다. 전 세계로 연결되는 하늘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주목했다. 이후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이자 글로벌 공항을 목표로 성장해 왔다.

2단계 건설공사를 통해 활주로를 추가하고 화물터미널과 탑승동 건설 등 세계 허브 공항 수준의 시설과 수용 능력을 확보했다. 3단계에서는

제2여객터미널을 조성하고 도로, 철도 등 접근 교통 시스템을 완공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의 규모를 키우고 제4활주로를 신설하는 등 인천공항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2024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의 여객과 63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하게 국제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다. 더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고객경험 인증에서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3번째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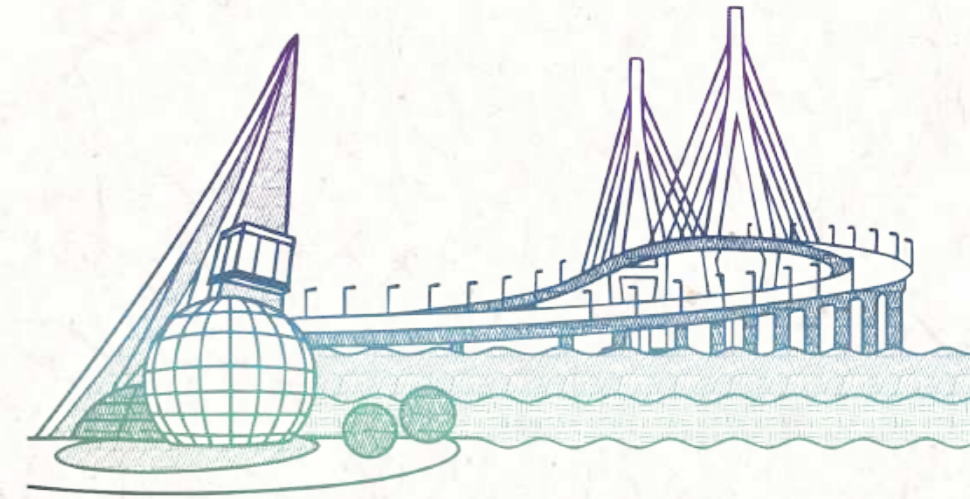


三

바다 위, 길게 놓인 다리

섬에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건설 당시 다리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다리가 길수록 휘어질 우려가 있어 중간에 교각을 설치해야 했다. 교각 사이의 폭이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나 선박이 다닐 수 없고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주탑과 케이블을 이용해 교각 사이를 크게 벌리는 현수교와 사장교 방식이다. 인천대교가 건설될 바다는 인천항의 무역선과 여객선의 항로였다. 따라서 다리 하부로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30~50m인 교각



사이의 폭을 800m까지 넓히고 사장교 방식을 도입했다. 주탑에서 대각선으로 뻗어 나온 케이블의 수평력으로 다리의 상판을 지탱해 휘어짐도 방지했다.

건설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인천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과 바람, 안개가 거센 곳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상에서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

었다. 또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3,000톤의 장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바다에 띄웠는데, 세계에서 처음 선보인 방식이었다. 이 밖에도 여러 첨단 기술이 도입되며 총길이 21.38km, 왕복 6차선의 사장교가 완성됐다.

2000년 개통된 영종대교를 뒤이어 2009년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하늘길이 더욱 활발해졌다.

중구 역사 퀴즈 1

중구의 역사를 잘 읽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세요!

Q. 과거 영종도를 구성했던 섬이 아닌 것은?

- ① 신불도 ② 영종도 ③ 삼목도 ④ 무의도

중구실록은
10월호에 계속됩니다.

쌀과자를 만들며 부풀어 오른 행복




김영수 어르신
[현미랑콩이랑] 참여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튀겨지는 쌀과자. 어느 정도 쌀과자가 쌓이면 작업장으로 전달한다. 이곳에서는 쌀과자를 봉투에 넣고 꼼꼼하게 포장한다.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이고 유통기한을 기입하는 것도 모두 어르신의 손길이 닿는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미소를 가득 띠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공동체 사업단

- 사업종류 현미랑콩이랑(제조판매업)
-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참여인원 16명
- 사업내용 쌀과자 제조 및 판매
- 근무시간 주 2~3회
- 문의 ☎ 762-2288

 어르신들을 위해
큰글씨로 제작되었습니다.



Q 자기소개와 어르신이 활동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현미랑콩이랑 쌀 과자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2011년부터 운영된 현미랑콩이랑은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는 일은 기계를 사용해 쌀과자를 생산하고 꼼꼼하게 포장해 고품격 영양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Q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불안감이 생겨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직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했고 현미랑콩이랑 사업단에 참여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올해는 조장직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A 아내와 같이 공부하는 노인학교 학생들에게 쌀과자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무척 좋아했다고 들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또 대량 주문이 들어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정성껏 만든 제품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거든요.

Q 일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노인일자리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업하다 보니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더해 일을 한다는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Q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지키는 것이 있나요?

A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체력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2~3회, 부평에서 신흥동까지 약 3시간 정도를 걷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야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Q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 홍보해 주세요.

A 현미랑콩이랑 쌀과자는 생산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수작업을 통해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영양 간식입니다. 현미쌀과자와 오곡쌀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입과 9개입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날개로도 판매하고 있으니 고소하고 담백한 쌀과자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근대 금융의 흔적, 인천 본정통 은행거리

글. 김선영 인천중구문화재단 학예연구사

9월
Bank Street

인천 중구청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신포로23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양식 건축 양식을 지닌 옛 건물들이 일렬로 이어진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건물들은 과거 일본계 은행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중구지부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서구식 건축기법으로 지어져 지금도 거리의 풍경을 이국적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 거리, 현재의 신포로23번길은 개항 이후 본정통(本町通, 혼마치도리)이라 불렀던 은행거리였다. 본정(本町)은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나라의 읍·면에 해당하며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가를 의미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충무로, 부산의 동광동, 광주의 충장로 등이 '혼마치'로 불렸으며, 인천의 본정통 역시 당시 인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조성된 각국 조계지(외국인이 거주하던 치외법권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자국의 무역과 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선에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1878년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이었으며, 인천에는 1883년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 인천출장소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 활동이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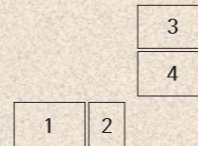
당시 일본 제1은행 인천출장소는 주로 조선에서 생산되는 금괴와 사금을 매입하는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1884년 2월 조선 총 세무사 뮐렌도르프와의 계약을 통해 관세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인천출장소는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고 일본 영사관의 금고 역할을 맡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09년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1911년에는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바뀌었다.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인천과의 무역량 증가에 따라 1890년 설립됐다. 이는 이 은행이 해외에 세운 최초의 지점이었다. 이후, 1936년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에 업무를 인계했다.

일본 제58은행은 오사카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1892년 인천전환국에서 주도된 화폐의 교환 업무를 위해 인천에 지점을 설치했다. 이들 일본계 은행들은 대부분 한일 간 무역을 위한 어음 결제와 금융 지원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흥림거양행은 홍콩상하이은행의 대리점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영사관이 한러은행 지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인천 본정통 거리 일대에는 다양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자리를 잡았다.

일본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본정통을 따라 줄지어 들어서면서 '은행거리'가 형성되었다. 이들 은행은 조선인의 자본을 수탈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 근대사와 건축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 1 — 인천항 본정통 사진연서(인천개항박물관 소장)
- 2 — 해관운용자금 차용사실 확인서 (복제품, 인천개항박물관 소장)
- 3 — 19세기 말~20세기 초 박물관 앞 거리풍경 재현 (인천개항박물관)
- 4 — 오늘날 본정통 은행거리 풍경



중구 동네 이야기

중구를 새롭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다양한 동네 소식들을 알립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어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다



개항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도우미 봉사

개항동 통장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범정부적 정책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항동에서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주민들이 큰 혼란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특히 개항동 통장자율회 소속 통장 8명은 신청일부터 현장 자원봉사자로 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항동은 안내창구 별도 운영, 현수막 게시, 자생 단체를 활용한 사전홍보, 어르신을 배려한 1층 사무실 내 접수처 마련 및 대기좌석 확보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영종1동



자율방재단 출범



지난 7월 15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한 '영종1동 자율방재단'이 출범했다. 영종1동 자율방재단은 장희철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피해 우려 지역 사전 예찰 활동을 비롯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숙지했으며, 활동 의지를 다지고 참여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3 신흥동



심폐소생술 교육 수강



신흥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7월 9일 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 EFR교육센터 이정열 강사가 맡았으며,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방법, 심정지 예방법, 혈관 건강관리 방법 등을 전문적이고 흥미롭게 가르쳤다. 이론 수업 후에는 마네킹을 놓고 현재 상태 확인, 주변인에게 119신고 요청, 심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며 익혔다.

2 용유동



을왕리해수욕장 포토존 교체



용유동 행정복지센터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을왕리해수욕장 포토존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포토존이 노후화로 해수욕장의 미관을 저해한 데 따른 것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조형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을왕리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해수욕장의 주요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신포동



아이들에게 자원순환 교육 제공



신포동은 지난 7월 16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재원생 13명과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이 각 계층에 요구됨에 따라 아이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에 동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안내했으며, 이어 카드섹션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구의회 소식

www.icjg.go.kr
중구의회 ☎ 760-7631

중구의회,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참여

1



중구의회는 7월 4일, 영종종합 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복지의 든든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개관을 축하했다.

제3연륙교 명칭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2

7월 31일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에 대해 '청라하늘대교'라는 불합리한 명칭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영종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반영한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 명칭 선정에 영종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인천 중구의회 유튜브 채널

인천 중구의 다양한 소식과 정책,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Jung-gu Council

Jung-Gu News

중구는 구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더욱 유익이 되는 구민 대상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 모집인원 90명
- 근무기간 총 21일
 - 교육 : 2025. 10. 15.~16.(2일)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 준비조사 : 2025. 10. 31.(1일)
 - 본조사 : 2025. 11. 1.~18.(18일) ※ 도급계약(상해보험 의무가입)
- 수행업무 조사대상 거처의 현지 확인 및 가구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등
- 자격요건 만 18세 이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내 담당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
- 접수기간 2025. 9. 8.~15.
- 접수방법
 - 1 온라인 : 인구주택총조사(www.census.go.kr) 또는 중구청 누리집(www.icjg.go.kr)
 - 2 방문 : 중구청 3층 홍보체육실 정보화팀으로 응시원서 및 채용서류 직접 제출
- 문의 중구 홍보체육실 ☎ 760-7094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5.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2기분), 토지
- 납부기한 2025. 9. 16.~30.
- 납부방법
 - 1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음
 - 2 은행 :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은행CD/ATM 납부
 - 3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 110)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4 ARS 납부서비스 : ☎ 142211
 - 5 스마트폰(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앱 또는 금융앱 설치 후 납부
 - 6 세무부서 방문 : 신용카드(일부 법인카드 제외)
- 문의 중구 세무1과 (원도심) ☎ 760-7250
중구 세무2과 (영종국제도시) ☎ 760-8820



2025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신청자격 중구 구민 누구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제출방법 ① 이메일 : choijy1129@korea.kr
 ② 우편 : (우 22315)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기획예산실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사업 공개(중구 누리집)
 신청서식 중구 누리집(www.icjg.go.kr) 행정정보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서
 ※ 서식 당 한 건씩 신청 가능,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비대상사업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중구 소관 사업이 아닌 경우

문의 중구 기획예산실 ☎ 760-7054

중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이용대상 관내 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 구민 누구나
 신고내용 •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 소극적 법률 해석, 반복 민원을 조성하는 규제
 ※ 비규제 및 단순 민원 제외

제출서류 중구청 누리집(www.icjg.go.kr)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① 방문 : 중구청 기획예산실
 ② 온라인 : 중구청 누리집 > 행정정보 > 행정규제개혁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③ 팩스 : 032-760-7059
 ④ 이메일 : seoch0912@korea.kr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시 유선 확인 필수

문의 중구 기획예산실 ☎ 760-7143



2025년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일시 2025. 9. 30. 10:00~15:00
 장소 영종 하늘체육공원
 대상 지역주민 약 500여명
 내용 치매극복의 날 기념 홍보 및 체험 행사
 • 뇌 건강 체험부스(초성게임)
 • 감각자극 부스(풍선 만들기)
 •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등
 ※ 체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 중구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 ☎ 760-6822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의 날 운영

운영일시 매주 (수) 14:00~16:00
 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 등
 대상 경로당 이용 지역주민 (최근 1년 이내 인지선별검사 실시자 제외)
 내용 • 치매 인지선별검사(CIST) 및 상담 실시
 • 치매 조기검진 검사의 필요성 및 치매예방교육 실시
 ※ 사전에 반드시 예약 필수

문의 중구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 ☎ 760-6947~8

건강마실터 어르신 모집

이용대상 인천 중구와 동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 등급과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이용시간 월~금요일(공휴일 휴무) 8:20~18:00
 ※ 송영시간 포함

지원내용 • 어르신 맞춤형으로 4명당 영양보호사 1인이 돌봄 제공
 • 상주 간호사가 매일 건강 확인
 • 치매 특화 집중형 프로그램 제공

문의 중구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 765-3545

천사(1040)지원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신청요건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동
 신청기간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60일 경과 시 지급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인천e음 포인트 연 120만원 지급
 문의 중구 여성보육과 ☎ 760-7913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신규가입 이벤트

기간 2025. 9. 2.~15.
 대상 중구 거주 탄소중립포인트 신규가입자 (선착순,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내용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참여방법 PC나 모바일로 누리집(cpoint.or.kr)접속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 후 회원가입

유의사항 • 기존 가입자 이벤트 대상 제외 (탈퇴 후 재가입 무효)
 • 1세대당 1명만 가입 가능
 • 가입 완료 후 별도 연락 불필요 (당첨자 문자 개별발송)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은 연중 상시 가능

문의 중구 위생환경과 ☎ 760-7393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라돈이란?
 땅속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노화된 주택의 바닥과 벽 등을 통해 집 안에 축적되어 고농도, 장기간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
 + WHO(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 지정
 + EPA(미국 환경보호청) 담배 다음 폐암 유발물질로 지정
 + 우리나라 공동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 : 148Bq/m³

지원내용 실내공기 중 라돈 무료측정 및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기간 2025. 12. 31.까지(신청순 조기 마감)
 신청방법 ①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접속
 ②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서비스제공 중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컨설팅' 클릭
 ③ 라돈 무료측정 신청 - '신청 페이지로 이동' 클릭
 ④ 라돈 무료 측정 신청하기 클릭해 신청서 작성

지원절차 ①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별신청(연중)
 ②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배송(11월 이후)
 ③ **국민** 신청인이 직접 검출기 설치 → 거실 등 대표지점에서 90일 이상 자가 측정 (11월~다음 연도 2월)
 ④ **국민**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발송 (다음 연도 2월~5월)
 ⑤ **공단**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다음 연도 2월~5월)
 ⑥ **공단** 라돈 고농도세대 저감 컨설팅 (다음 연도 6월 이후)
 ※ 올해 신청 시, 측정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에 결과 및 저감 컨설팅 제공

주의사항 • 침대, 매트, 대리석 등 특정 제품의 농도 측정 불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 1811-8336으로 문의 요망)
 • 습기가 많은 곳이나 전자제품 근처 설치 금지
 •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 변화 시 측정 불가

문의 한국환경공단 라돈콜센터 ☎ 1899-9148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 마음의 위안과 인문학적 감성을 쌓을 수 있는 독서.
 2025년 <중구 두드림톡>에서는 구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독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된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중구 책 읽기 프로젝트

당신의 책갈피



이곳에서 책 읽어봐요!

울목도서관

주소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 17
 운영시간 평일 9:00~22:00, 주말 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770-3800

꿈벗도서관

주소 인천 중구 홍예문로 32
 운영시간 9:00~18:00(목요일은 20:00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764-6111

영종도서관

주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 85
 운영시간 평일 9:00~22:00, 주말 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745-6000

영종하늘도서관

주소 인천 중구 하늘중앙로 132
 운영시간 평일 9:00~22:00, 주말 9:00~18:00
 ※ 휴관일 :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746-9143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
 건네는 위로

서른셋의 배달 기사 강하고는 유일한 가족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매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지긋지긋해진다. 삶에 지쳐 있던 어느 날, 그녀는 근육질 할머니들에게 납치당해 '구절초리'라는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이후 영춘, 길자, 원주를 비롯한 개성 넘치는 할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밝고 따뜻한 삶으로 변해간다.

김슬기 작가의 장편소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는 12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고 출간됐다. 1000: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작품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작품 속 할머니들은 비어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고 어디로 가는지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상처로 가득한 강하고의 마음을 다독인다. 이렇듯 다 자란 어른이 회복하는 데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혈연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강하고와 할머니들이 같이 밥을 먹고, 춤을 추고, 목욕탕에 가는 등 서로의 삶을 돌보는 것처럼 각자의 허기를 채워주는 연대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저자 김슬기
 펴낸 곳 클레이하우스
 펴낸 날 2025. 7. 9.



“우리에게겐 **혈연과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강인한 연대**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역대 최다 응모작을 뚫고 뛰어난 괴력의 소설



제12회 브런치북
 소셜 부문 대상작

